

이명훈 한국도로공사 전남본부장 취임



이명훈(52) 한국도로공사 전남본부장이 최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 본부장은 지난 23일 취임식에서 “고객 안전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 고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 출신인 이 본부장은 지난 1984년 한양대를 졸업한 뒤 한국도로공사에 입사(1987년), 호남건설사업소 공사부장(2003년)과 무안광주건설사업소 품질관리부장(2004년), 안동영덕건설사업단장(2012년) 등을 역임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농협, 경로당 어르신 이·미용 봉사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근)와 평동농협(조합장 남하룡)은 최근 설 명절을 맞아 광산구 용곡마을 외 20여개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 대상 이·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전국 장애인재활협, 신년교례회



전국 장애인재활협회 중앙회 이상철 회장과 임직원들은 최근 서울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장애인재활협회 제공)

고 손양원 목사, 서울 중동고 95년만에 졸업



여수에서 목회를 했던 고(故) 손양원(1902~1950·사진) 목사가 오는 2월6일 서울 중동고등학교 107회 졸업식에서 입학 95년 만에 명예졸업장을 받는다.

1938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 여수 애양원 교회에 부임한 그는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신앙을 지켰고 한센병 환자를 돌보았다.

손 목사는 1919년 중동학교에 입학했으나 아버지 손윤일 장로가 3·1 만세운동에 연루되자 일제 강압으로 학업을 그만뒀다. 중동고는 “손 목사가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긴 했지만 순교자로서의 거룩한 삶과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기리는 뜻에서 명예졸업장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손 목사는 1938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애양원교회에 부임한 뒤 한센병 환자와 함께 생활했으며,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다 1942년 투옥됐다. 1948년 여순사건 때는 자신의 두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공산당원을 양아들로 삼는 사람을 실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그의 일생을 담은 뮤지컬 ‘사랑의 원자탄’이 제작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8명에 새생명 주고 천사가 된 소녀

백의의 천사 꿈꾸던 김은민양
소중한 장기 기증후 하늘로



증 동의서에 최종적으로 서명해 주위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기증한 장기는 심장, 양쪽 폐, 간,

간호사를 꿈꾸다가 뇌사판정을 받은 10대 소녀가 8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떠났다.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께 김은민(18) 양이 갑자기 쓰러져 조선대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장대 간호사가 되고 싶어하던 김양은 갑작스런 구토와 두통으로 의식이 소실된 채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혼수상태에 빠졌다. 조선대병원 의료진으로 구성된 뇌사판정위는 가족들에게 김양의 소생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가족들은 뇌사판정에 앞서 딸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라며 기증에 뜻을 모았고 장기기증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녀의 아버지는 죽음이 임박한 김양을 보며 오열하면서도 “내 딸만큼 귀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줄까”라며 장기기

체장, 양쪽 신장, 양쪽 각막 등 사실상 몸에 있는 전체 장기여서 수술진도 해당과 별로 준비하느라 30여 명으로 준비됐다. 태어난 장기는 전국 각지에서 장기 이식을 받으러 대기하던 환자 8명에게 적출 즉시 헬기 등으로 신속히 공수됐다.

그녀는 장기 이외에도 피부와 뼈 등 인체 조직까지 기증함으로써 많은 생명을 전할 수 있었다.

조선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 김성환 센터장은 “쉽지 않은 결단을 해주신 가족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고인의 고귀한 뜻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대병원 전 스태프들이 최선을 다해 수술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장기이식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된 만성질환 환자 중 장기이식 가능 환자에 대해 뇌사자로부터 이식을 받기 위해 등록된 대기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 이뤄진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저소득층 300여명에 1500만원 물품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희망나눔’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노진영·사진 오른쪽)는 27일 목포시 옥암동 전남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서 삼삼사회봉사단의 후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2014 희망나눔물품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날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남도내 22개 시·군 300여 명 저소득층에게 명절용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떡국용 떡과 간장, 라면 등 1500만 원 상당 물품을 전달했다.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는 전남지역 28개 기초푸드뱅크와 지속적인 기부를 펼칠 예정이다. 물품기탁은 전라남도푸드뱅크(061-283-1477)에 문의하면 된다.



노진영 회장은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이웃을 생각하는 후원이 줄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지역주민과 기업들이 기부확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홀몸 어르신·소년가장에 ‘사랑 한보따리’

아모레퍼시픽 광주본부
생활용품 150세트 전달



아모레퍼시픽 광주사업부(상무 노민수)가 지난 25일 광주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아름다운나눔보따리’행사를 개최했다.

임직원 등 80여 명은 기업후원 생활용품과 아모레퍼시픽 광주사업부에서 마련한 생활용품 세트 150세트를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생활용품은 아름다운가게 전국 매장의 수익금과 기업 후원 등으로 마련한 것으로 쌀과 참주, 비누, 수건, 라면 등이다. 아모레퍼시픽 광주사업부는 10년 넘게 광주 아름다운가게를 후원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광주사업부 노민수 상무는 “이번 ‘아름다운나눔보따리’행사는 광주 지역

에서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고객님께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며 “앞으로도 항상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고객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여러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동창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규중) 월례회=2월 5일(수) 오후 6시 금강산식당 062-224-0808.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장애아동통합교육보조사업단=저소득층 주민에게 특수교육실무사의 기술 교육 및 공동체 교육을 통해 양질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경제적인 자립 기회 제공. 광주 서구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적절한 교육 및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아 및 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 기여.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2-3029.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한부

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

주지부 062-227-8877.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읍장장비(엘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인인권센터연구소 062-369-0420 (1577-5364).

▲습관성도박(경마, 주식, 복권, 인터넷도박, 성인오락 등)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사회복지법인 수안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

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모집

▲동구자원봉사센터=전문봉사단 육성 교육생 모집-동화구연·수지점, 교육 후 봉사활동가능한자, 경로당 전문강사모집-건강증진·여가 프로그램진행가능자, 전문재능봉사단체 모집-교육·문화·이미용·주거환경개선·마사지·홍보 등 모집 기간은 2월 28일(금) 062-228-1365.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2월 25일(화·1차), 3월 4일(2차), 오후 6시30분~9시, 광주대 호심관7층(707호) 양택, 음택·수택, 나경·임향론, 비결복명당, 장법요강 등 진정학 이론과 현상 영상 강의(책자무료제공) 010-3609-8117.

▲광주유교대학 학생=1학년 신입생 50명(월·수 오후 3시 30분~5시 30분)·2학년 편입생 20명(화·목

후 3시 30분~5시 30분), 성별·학력·나이 제한없음·2년간 학업이수자는 졸업과 동시에 성균관 유학대학원 수료증 수여. 접수기간은 2월 28일까지 062-672-7008.

▲제1기 광주불교 입문학당=기간은 2월 5일~4월 30일(3개월·매주 수요일), 시간은 주간(오후 2시~4시)·야간(오후 7시~9시), 교과는 불자예절과 신행생활·예불문 및 천수경·사찰의 구조·불교의례, (사) 광주 불교교육원 062-228-9098.

▲함께 안아요! 함께 키워요! 가정위탁! 위탁부모=부부의 사랑,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를 모집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 062-351-1206.

▲광주여성하모닉스합창단(지휘 이준) 단원=클래식음악을 좋아하는 광주지역 거주 여성, 매주 월·목요일 오후 2~4시 광주문화예술회관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실 016-604-1918

(회장), 010-4416-9883(총무).

▲허남근로자종합복지관=1~3월 여가운영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영어회화, 중국어회화, 컴퓨터, 방송댄스, 스포츠댄스, 요가 062-951-9461.

▲농성문화의 집 오전요가 수강생=균형있는 몸매와 정신을 맑게 깨우는 요가 관심있는 분이려면 누구나 환영(매주 화·금, 오전 9시 30분~10시30분) 062-362-2072.

부음

▲이병률씨 별세 민호·민영씨 부친상=발인 28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박봉순씨 별세 이호현·호순·호민·호자·호순씨 모친상=발인 28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p>101호. 故이문자 님(여/70세)</p> <p>子: 최남동 女: 최진숙, 정. 진희 • 호 실: 101호 • 장 지: 영락공원</p>	<p>102호. 故정영순 님(여/84세)</p> <p>子/子婦: 정인숙/최인숙, 민수/김민정 女/婦: 정영희/박동현, 영숙/이갑순 • 호 실: 102호 • 장 지: 영락공원</p>
<p>201호. 故고광을 님(남/70세)</p> <p>子/子婦: 고기우/김미숙, 학석 未成人: 박하순 女/婦: 고현숙/구경수, 현옥/노영훈, 현미/김성복, 현정/오상민</p>	<p>402호. 故임춘례 님(여/80세)</p> <p>子/子婦: 임영호/이미영, 성훈/박금희 女/婦: 이혜수/김남철, 혜정/서명민</p>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